

## "공중보건치과의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국가경제 어려워도 국민보건의료  
소홀해서는 안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정신없이 맞이했던 98년도 어느덧 절반 가량을 지나고 있다. IMF 경제실태통치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실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경제 분야에 집중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아 왔던 의료계 역시 국가 경제구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임을 실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치아의 날 행사를 운운한다는 것이 어쩌면 지나치게 한가한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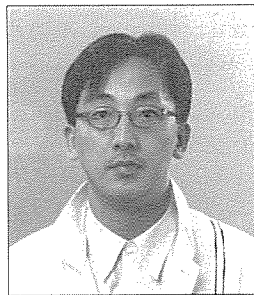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보건의료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닐 것이다. 만일 당장의 경제회복을 위해서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분명 국가 차원의 직무 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치과인들이 치아의 날 행사를 통하여 대국민홍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욱 중대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행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보고자 한다.

### 전국적 통일성으로 홍보효과 극대화해야

우선 지금까지의 치아의 날 행사가 전국적인 통일성 결여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각지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시에 진행되



백승엽/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  
97년 대표

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행사  
의 내용은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행사의 기획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행사를 준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  
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라든가  
각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행사 내용

을 정리하여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해 주는 것과 같은 기능을 중앙차원에서 - 즉,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 담당해 주어야 한다.



치협 및 각 지부는 국민을 상대로 만화를 통해 치아관련 상식을 전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벤트성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예산에 관한 부분이다. 현재까지는 각 시·군 단위 보건소 혹은 면단위 보건소 예산에 잡혀 있는 극히 적은 금액만으로 겨우 행

공중보건치과의사 및 공직치과위생사들이 사재를 쏟아 부어 겨우 행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일선에서의 참여 의욕저하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지침을 내려보내 줌으로써 각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예산에 적정 수준의 구강보건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거나, 치협이 각 지역의 치과의사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 요청을 함으로써 매년 일정 수준의 구강보건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치과의사회로부터 후원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매우 유동적이어서 치아의 날 행사의 연속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중보건치과의사 및 공직치과위생사들이 사재를 쏟아 부어 겨우 행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일선에서의 참여 의욕저하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지침을 내려보내 줌으로써 각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예산에 적정 수준의 구강보건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거나, 치협이 각 지역의 치과의사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 요청을 함으로써 매년 일정 수준의 구강보건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 치과의사 의식구조의 변화 요구돼

마지막으로 치과의사들의 의식구조를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을 호소하고 싶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치과의사의 모습보다는 진료수입과 병원 경영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 훨씬 더 부각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보험체도가 잘못 되었다느니



치협은 구강보건주간을 맞아 매스컴에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또는 의사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커다란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모든 치과인들이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에서 관련 지침을 내려보내주거나 사업이 치과의사에게 결코 소모적이기만 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동안 잠재되었던 수요를 실질 수요로 이끌어내는 부가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치과의사로서의 기득권 포기로 더욱 귀한 열매 얻기를

최근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을 바라보는 사회의 눈길이 결코 곱지만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좀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어찌면 그동안의 죄과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내가 먼저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몇 가지를 포기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다. 치과의사가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해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면 분명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사회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을 것이다.